



서구의회보

SEOGU DISTRICT COUNCIL

CONTENTS

- 02 의회연혁
- 04 제7대 제2기 의장 신년사
- 06 제7대 제2기 서구의회 기고문
- 08 의정일기
- 10 서구의회 의원 현황
- 14 회기별 운영상황
- 18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30 의정포토
- 35 구민 수필
- 38 구민 글, 시
- 40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 41 의회방청안내, 투고안내

통 권 제 44호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인 의장 심우창
편집인 서구의회 사무국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T.032-560-5850~60 F.032-560-2797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회보는 인터넷 (www.seo.incheon.kr/family)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01 의회 연혁

1990	12.31	지방자치법 개정
1991	03.26 04.15 04.15	초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선거 제1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20명) 제1대 제1기 의장단 선거 (의장 : 문기현, 부의장 : 윤철)
1992	02.25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총무보사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1993	04.10 04.15 05.15	제1대 제2기 의장단 선거 (의장 : 문기현, 부의장 : 윤철)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재선임 및 위원장 선거
1995	01.01 03.01 06.27 07.11 07.11 07.12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개칭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인천광역시 서구로 통합 (의원정수 21명)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 제2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24명) 제2대 제1기 의장단 선거 (의장 : 조길휘, 부의장 : 윤만영) 제2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1996	07.11	검단동 선거구 재선거 실시
1997	01.08 01.09	제2대 제2기 의장단 선거 (의장 : 조길휘, 부의장 : 김대식) 제2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1998	06.04 07.07 07.07 07.08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3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3명) 제3대 제1기 의장단 선거 (의장 : 윤만영, 부의장 : 권오창) 제3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2000	07.08 07.08	제3대 제2기 의장단 선거 (의장 : 권오창, 부의장 : 심우창) 제3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2002	06.13 07.08 07.08 07.08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4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4명) 제4대 제1기 의장단 선거(의장 : 강영모, 부의장 : 이상기) 제4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2004	06.05 07.05 07.05 11.02 12.14	재보궐 선거 (석남1동 민영철) 제4대 제2기 의장단 선거 (의장 : 강영모, 부의장 : 이상기) 제4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제4대 제2기 의장단 재선거 (의장 : 윤지상, 부의장 : 이명재) 제4대 제2기 의장단 재선거 (의장 : 이상기, 부의장 : 박승희)
2005	01.28 09.06	제4대 제2기 부의장 재선거 (부의장 : 민영철) 제4대 제2기 부의장 재선거 (부의장 : 민태원)
2006	05.31 07.04 07.04 07.05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4명) 제5대 제1기 의장단 선거 (의장 : 민태원, 부의장 : 강성구) 제5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2007	04.25 05.28 06.19	재보궐 선거 (가좌동 임동주) 제5대 제1기 의장 재선거 (의장 : 고월출) 제5대 제1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재선거 (운영위원장 : 구재용)
2008	06.30 06.30	제5대 제2기 의장단 선거 (의장 : 강성구, 부의장 : 송영우) 제5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2010	07.07 07.07 07.08	제6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4명) 제6대 제1기 의장단 선거 (의장 : 김영옥, 부의장 : 정일우) 제6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2012	07.08 07.08	제6대 제2기 의장단 선거 (의장 : 이상섭, 부의장 : 이종민) 제6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2014	04.21 06.04 07.07 07.07 07.08	제6대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재선거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7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의원정수 16명) 제7대 제1기 의장, 부의장 선거 (의장: 이종민, 부의장 : 심우창) 제7대 제1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2016	07.04 07.05	제7대 제2기 의장단 선거 (의장 : 심우창, 부의장 : 이종석) 제7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새해에도 힘찬 서구의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16년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그 어느 해보다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 국민들에게 슬픔과 어려움을 안겨준 한해였으며,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인과 국내 소비 심리 부진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제 역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주변 여건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2016년 한 해를 슬기롭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회기동안 200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민생과 관련된 153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92건을 시정·건의 조치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점도 선반수리조선단지조성 결사반대 결의안, 대체매립지조성 결사반대 결의안,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 하는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구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서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사업, 루원시티 개발사업, 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등 대형 국·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서구, 안전한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더욱 힘든 만큼 골목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가 남긴 과제를 잊지 않고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의회, 특권집단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는 서구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경기회복과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제7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2년 6개월 동안 관내 곳곳을 돌아보며 각계각층의 많은 구민들을 만날 때마다 때론 격려로 때론 질책으로 성원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이라는 의정목표아래 2017년 새해에는 구민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는 서구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구민 통합을 위해 의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의 통합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향하는 가치의 다름을 인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견을 모아가는 민주적인 자세를 통해서만 진정한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민 통합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포용과 협력’의 정신으로 서구의회가 서구 발전을 위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우리 의회가 구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창을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늘 같이 호흡하고 함께 공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들과 만나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며, 어렵고 불편한 이웃들의 삶에도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는 등 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조화를 통해 구민 중심의 행정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목표는 구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집행부와 협력하되,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들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소모적인 갈등은 예방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와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등 구민의 현안사항을 챙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복지는 성장이고 일자리입니다. 복지를 위한 투자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국가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윤회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서구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동 복지 허브화·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부문’ 우수지자체 수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천시의료급여 사업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구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기업·일자리센터의 연계를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주물단지 등 각종 환경위해시설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완충녹지사업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집행부와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겸청즉명 편청즉암(兼聽則明 偏聽則暗)” 즉 두루 들으면 현명하고, 치우치게 들으면 도리에 어둡게 된다는 말을 가슴 속 깊은 곳에 담고, 구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며, 구민의 입장에서 서서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변화와 희망의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 심우창



문명 간의 대화

“ 몽골 ”

7대 인천서구의회는 그동안 해외 연수를 통해 보고 겪은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 일정의 첫 번째가 동유럽의 쓰레기처리 및 도시 내 혐오시설물 운영 현황, 두 번째는 서구 관내 기업의 진출국인 베트남에서의 고층민원 관련 일정이었다. 다음으로 이제 막 도시개발의 기지개를 펴는 몽골을 세 번째 연수 장소로 택하게 되었다.

첫 일정으로, 몽골수도 울란바토르시로 이동해 우리 서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 25만명의 바양골구를 친선 방문하였다. 무척 인상적인 것은 여성 의원의 수가 의회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정치영역까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 서구가 좀더 전향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토라 강을 중심으로 길게 타원형으로 형성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도시계획청과 투자청)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현재 지하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자본과 기술이 접목되어 이루어진다는 대목에선 입맛이 썩었다. 노선의 총 길이가 인천2호선보다 짧고 수도 치고는 인구가 많지 않아, 2량으로 무인 운영하는 2호선의 경쟁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2호선의 개통이 좀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울란바토르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우리 세종시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 청라, 송도신도시 같은 계획도시라면 우리 인천만한 곳이 없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인천과의 협력 가능성을 문의했고 초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답을 얻었다.

독특한 행정문화도 인상적이었다. 도시계획청이 계획을 하면 곧바로 투자청에서 투자에 대한 검토와 투자유치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오류 지적, 개선, 추가 등 상호간의 피드백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 간에 칸막이가 없다는 것은, 그 효율성과 추진력을 볼 때 우리 서구에서도 고민해볼 만한 것이었다.

몽골은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전통가옥인 게르체험을 통해 양젖이 듬뿍 담긴 수제과자와 마유주를 대접하는 것을 자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밀고 있었다. 관광 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나 식생활과 관련된 먹거리라는 점을 잘 파악하는 듯하였다. 문화를 마시고 문화를 먹는다고 하지 않던가.

문명 간의 만남은 충격 후 교류 순서로 이어져왔듯이, 마유주의 높은 알콜도수와 역한 냄새는 이내 정신을 아찔하게 했다. 그럼에도 몽골의 거칠었던 환경과 역사를 떠오르게 만드는 일종의 토템과도 같기에, 게르 안에서 마유주를 한사발 들이키는 것이야말로 몽골을 이해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다가왔다.

지역관광의 먹거리 측면에서 그동안 놓쳤던 것을 순박한 유목민을 통해 되찾는 기분이었다. 즉, 화려한 볼거리와 서양식 먹거리만이 전부는 아님을 주목하게 되었다. 타지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먹거리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필수 코스로 인식하게끔, 서구의 역사를 담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번 몽골 연수를 통해, 정치면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인 진출과 공공행정면에서의 부처 간 유기적인 업무소통과 신속한 피드백처리를, 문화관광 면에서는 한 국가의 정수가 담긴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을 보았다. 차후 이러한 두 가지 면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후속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다.

인천서구의회의장 심우창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 지원 명문화해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을 서구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집행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사진)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구의회 231회 임시회 의정 자유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우리 서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줄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과 관련해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올해 1월부터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입된다.

올해 생활폐기물 1t당 반입수수료가 3만6천780원인데, 1t당 수수료의 50%(1만8천390원)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로 넘기는 방식이다. 최 의원은 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인천시는 서울시에서 지난 2013년부터 받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을 집행할 때 서구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서구는 시에 640억원(18개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제 집행됐거나 예산 지원이 확정된 규모는 228억원(9개 사업)으로 요청액의 3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1천25억원 중 올해까지 540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았고, 2017~2018년도에 485억원의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입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집행 상황을 보면 서구가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 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일부만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부터는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중 최소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서구 주민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의 t당 반입수수료는 2017년 4만4천985원, 2018년 5만5천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출처 : 경인일보

"건보료부과 공정개편안 제시하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는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발한지 불과 12년 만에 전국민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암과 같은 4대 중증 환자가족의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은 고무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민원인의 고성과 욕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불만 가득한 민원인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됐고, 이들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직장피부양자 중 과세표준액(9억원 이하) 재산 소유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나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악이 어려웠던 지역의료보험이 출범한 당시에는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일견 타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사회 환경은 제도가 시행된 27년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국세청의 소득과악률은 90%에 달하고 있어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사회변화에 맞도록 개선돼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에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통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전국민의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를 수용해 2013년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부과체계에 대해 당정협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곽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부과체계 개 편을 기다리는 입장은 답답할 뿐이다.

물론 제도를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국회까지 나서서 부과체계 개선 입법안을 만들고 국민의 70%가 개선에 찬성하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지 알 수 없다.

소득절벽에 선 퇴직자나 생계형 체납자 눈높이에서 고액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개편논의는 이제 마무리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 인천일보

제7대 제2기 서구의회 의원현황

의장단



의 장
심우창

검단 1,2,3,4,5동



부 의 장
김용인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2,3동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박삼숙

검암경서동,
청라 1,2,3동



기획총무위원회
위 원 장
이의상

검단 1,2,3,4,5동



복지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규술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2,3동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박삼숙

검암경서동,
청라 1,2,3동



부위원장
최영숙

비례대표



위 원
김윤순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 1,2,3동



위 원
이용창

가좌 1,2,3,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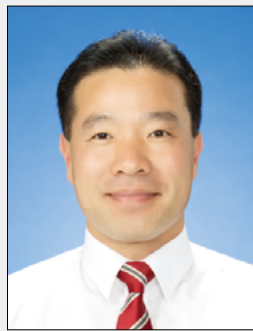
위 원
전옥자

비례대표

의원수 : 5명

소관사항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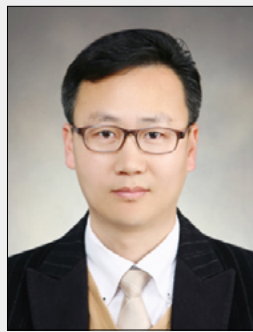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 의 상
검단 1,2,3,4,5동



부위원장
이 용 창
가좌 1,2,3,4동



위원
전 재 운
검암경서동, 청라 1,2,3동



위원
박 삼 속
검암경서동, 청라 1,2,3동



위원
김 용 인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2,3동



위원
이 한 종
석남 1,2,3동



위원
최 영 속
비례대표

의원 수 : 7명
소관사항 :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총무국,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 규 술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 1,2,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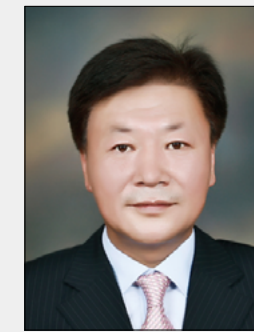
부위원장
전 옥 자
비례대표



위원
이 종 민
검단 1,2,3,4,5동



위원
천 성 주
검단 1,2,3,4,5동



위원
이 종 석
검암경서동, 청라 1,2,3동



위원
김 윤 순
심원창동, 연희동, 가정 1,2,3동



위원
박 형 렬
석남 1,2,3동



위원
문 순 석
가좌 1,2,3,4동

의원 수 : 8명
소관사항 : 문화복지부,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안심사결과 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9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발의자
1	2340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기획예산실)	서구청장
2	233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최영숙 의원 대표발의
3	233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예산실)	서구청장
4	233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예산실)	서구청장
5	2333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예산실)	서구청장
6	2334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세무1과)	서구청장
7	2335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세무1과)	서구청장
8	2336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세무1과)	서구청장
9	2341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자산관리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	서구청장
심사결과 : 원안가결 9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발의자
10	2337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노인장애인복지과)	서구청장
11	2338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입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도시개발과)	서구청장
12	2339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도시재생경관과)	서구청장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안심사결과 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발의자
1	234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최영숙 의원 대표발의
2	234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최영숙 의원 대표발의
3	234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이용창 의원 대표발의
4	2345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경제에너지과)	이의상상 의원 대표발의장
5	2346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총무과)	서구청장
6	2347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예산실)	서구청장
7	2348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복지도시위원회 (인재육성과)	서구청장
8	2349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복지도시위원회 (도시재생경관과)	서구청장
9	2350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복지도시위원회 (도시재생경관과)	서구청장
10	2354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복지도시위원회 (도시재생경관과)	서구청장
11	235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안심사결과 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16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발의자
1	235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전옥자의원 대표발의
2	2362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총무과)	천성주의원 대표발의
3	2377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업지원과)	서구청장
4	2371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획총무위원회 (세무1과)	서구청장
5	2372	201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기획총무위원회 (경제에너지과)	서구청장
6	2369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	서구청장
7	2370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과)	서구청장
8	2378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여성보육과)	서구청장
9	2363	심사결과 :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3건	복지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과)	서구청장
10	2364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건축과)	서구청장
11	2374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가좌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도시위원회 (건축과)	서구청장
12	2373	2017년도 (재)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	복지도시위원회 (인재육성과)	서구청장
13	2375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서구 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도시위원회 (건강증진과)	서구청장
14	237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복지도시위원회 (도시개발과)	서구청장
15	2366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서구청장
16	236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서구청장

심사결과 : 수정가결 3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발의자
1	2365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건축과)	전옥자의원 대표발의
2	2379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건축과)	천성주의원 대표발의
3	2367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장단 · 상임위원장 관내 유관기관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지난 7월 19일 서부소방서 외 5개소의 관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제7대 제2기 서구의회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7월 19일 오전 서부소방서를 시작으로 서부경찰서, 서인천우체국을 방문한데 이어 오후에는 서부교육지원청, 서인천세무서, 보훈회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난 7월 4일과 5일에 제211회 임시회에서 당선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온 서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서구의회 제2기 의장단, 시장 방문 현안사항 논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지난 7월 28일 제7대 제2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접견을 통해 서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접견에는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박삼숙 의회 운영위원장,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이 참석하여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및 검단지구의 조속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 등 서구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다.

접견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격의없이 자유스럽게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서구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인천시와 서구의회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매우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서구의회 심우창 의장,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 '첫 손님맞이 행사' 참여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장이 지난 7월 30일(토) 완정역에서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실시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관련 '첫 손님맞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의 첫 손님은 서구 당하동에 거주하는 성완용씨였다. 첫 손님인 성완용씨(남)는 5시 4분경 개찰구를 통과하여 완정역 첫 손님의 영광을 안았으며, 심우창 의장은 준비된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성완용씨는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는 날 완정역을 이용한 첫 손님이 되어 기쁘며, 올 한해 동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완정역 첫 손님맞이 행사를 마치고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어 신·구도심의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역세권 주변의 유동 인구 증가로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서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하철 공사로 인한 소음과 교통 불편을 참아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지하철 2호선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방문



인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 의원들은 지난 8월 24일 '2016. 을지연습'을 실시중인 서구청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심우창 의장과 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6년 을지연습 현장을 둘러보고 주요 상황을 보고받은 뒤, 훈련 중인 공무원과 군인,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며,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가 더욱 굳건히 확립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회도 구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제7대 제2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관내 유관기관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지난 8월 25일 매립지관리공사와 미래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제7대 후반기 서구의회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의장단(의장 심우창, 부의장 이종석) 및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박삼숙, 기획총무위원장 이의상, 복지도시위원장 최규술)은 매립지관리공사와 미래복지재단, 주민지원협의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수송도로(드림로) 관리 등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다.

이날 방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격의없이 자유스럽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매우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서구의회 제7대 제2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단(의장 심우창, 부의장 이종석) 및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박삼숙, 기획총무위원장 이의상, 복지도시위원장 최규술)은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8월 25일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였다.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하고 가정에만 있는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 견학을 마친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장애인들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하기에 서구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복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 대곡동 황곡마을 선녀벌레 퇴치작업 동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장과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이 지난 8월 26일(금) ‘미국선녀벌레 확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관내 대곡동 황곡마을의 외래 해충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작업에 동참했다.

이번 활동은 미국선녀벌레 방제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방역활동을 실시해 대곡동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방역작업에는 서구청 농수산팀과 검단출장소 산업팀 관계공무원, 검단농협 양동환 조합장, 신위균 서구통장연합회 지부장을 비롯한 대곡동 황곡마을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원녹지와 방역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작물이나 도로변 가로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일대를 집중 방역했다.

심우창 서구의회의장은 “서구청 공원녹지과의 방재차량지원과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방역에 참여해 주셔서 수월하게 방제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의장단 검단신도시 사업현장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지난 9월 2일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서구 주요현안 사업인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당하동에 위치한 1-2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사업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서구의회와 인천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후 인천영어마을 옥상으로 자리를 옮긴뒤 LH현장소장으로 부터 현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은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서구의 주요현안 사업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 의원)가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예산 대비 약 625억 9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중 의원)에서 심사를 진행,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 3억 4천 1백 9십 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였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규칙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9월 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영숙 의원, 최규술 의원, 이종석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이 있었다. 최영숙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이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최영숙 의원은 이 날 자유발언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구에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2

최규술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인천시의 행태에 대하여 성토하는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최규술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회차원에서 환경부나 인천시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인천시는 5천억원의 큰 돈을 들여 서구에 지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인천시 자체행사 조차 사용하지 않는다며 문학경기장만이 아닌 애물단지 낙네임이 붙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이미지 해소를 위하여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자체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종석의원은 의정자유발언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건강, 환경, 재산권의 피해보상과 함께 현재 매립지 주변에 대해 서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며, “제3매립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서구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협의결과”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번 임시회 결과와 관련하여 서구의회 심우창 의장은 “지역의 민감한 현안에 있어서는 즉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라며,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반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희망나눔 명패가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지난 9월 9일 의장실에서 희망나눔 명패에 가입하고 봉사원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손정희 사무처장으로부터 ‘희망나눔 명패’를 전달받았다.

희망나눔 명패란 인천지역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프로그램으로 매월 약정금액을 기부하면 적십자 봉사원과 1:1 결연 맺은 관내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맞춤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희망나눔 명패에 가입한 심우창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현장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등 우리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폭넓은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에서는 지난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2016년 하반기 서구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를 제주도에 실시하였다.

서구의회 의장 및 의원 8명과 사무국 직원 4명(총13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에서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기법,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심사 기법 등에 대한 전문 강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함양과 의원 역량강화에 힘썼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사단법인 독도사랑회 김종성 강사를 초빙하여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국심 고취 및 독도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사랑 박물관과 일본군 진지 땅굴을 견학하여 전쟁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우창 의장은 “제주도는 관광과 즐길거리가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역사적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강제노역을 당한 제주도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였다.

또한 “이번 의정연수는 비록 서구의회 전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지속적인 의원들의 전문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능력이 향상되고 구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서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서구의회 의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 실시



인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 의원들은 지난 5일 구청 대상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천 서구청 감사실 김상모 옴부즈만팀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 및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가며 강의를 진행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를 마친 후 서구의회 심우창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청렴한 서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개정, 매립지반입수수로 가산금 예산지원 명문화 결의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가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1일과 10월 12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고, 10월 13일은 고양시 문화재단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 및 의원들의 식견을 높일 수 있었다. 10월 14일과 10월 17일에는 다시 집행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고 10월 18일에는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였고, 그 외 2건의 조례와 2건의 규약안, 3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10월 19일에는 문경시의 문경새재와 아자개장터를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문화재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탐방을 하였다.

조례개정, 매립지반입수수로 가산금 예산지원 명문화 결의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인의원과 전옥자의원의 의정자유발언과 이용창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반입수수로가산금 인천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 결의가 있었다. 김용인 의원은 “루원시지를 행정 옹거시설이 집중된 교육행정연구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빠른 시일내에 시작해달라 촉구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인천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역시 시장님 임기내에 꼭 건립하여 달라”라고 하였다.

전옥자의원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대책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들이 건물명도 및 강제퇴거 시키고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한다”고 하며 “사업시행자들은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서구 의원 전체가 결의한 폐기물반입수수로가산금 인천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창의원은, “현재 폐기물반입수수로 가산금이 인천시 특별회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서구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무시하고 집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인천시는 폐기물수수로 가산금에 대하여 서구민을 알보는 행태를 멈추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에 전액 집행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번 임시회 결과와 관련하여 서구의회 심우창 의장은 “서구의회는 의원 특권 내려 놓기 등을 통하여 선진의정을 추구하고, 인천시에 폐기물반입수수로가산금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조례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10월 18일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삼숙)를 열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는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영숙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의원행동강령 개정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해 실천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건전한 지방의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삼숙 운영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회 기간 중 『고양시 문화재단』
현장방문 진행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가 10월 13일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시 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재단 임원진들과의 간담회와 시설 견학 등을 진행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서구의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문화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고양 아람누리』, 『고양 어울림누리』 시설 견학 및 현황 청취 등의 일정으로 약 2시간가량 이루어졌다.

현장방문에서 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질의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현장방문을 마친 후 의원들은 “오늘 방문의 목적은 서구민의 문화 혜택을 증진 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고양시 문화재단의 우수사례를 우리 인천 서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서구시설관리공단 및 서구문화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이 방문한 만큼 고양시 문화재단의 장점을 서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서구의회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간 일정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가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22일 ~ 11월30일) 일정을 끝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적발하여 개선 및 시정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 192건 (건의사항 159건, 시정사항 33건)을 지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한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인천서부지사, 심우창
인천서구의회 의장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인천서부지사(지사장 조성희)는 지난 28일(월) 오전 심우창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여 건강보험 민원업무를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심우창 일일명예지사장은 이날 인천서부지사장(조성희)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 계획,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등 공단 경영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민원실에서 민원업무처리를 직접 시연하였다.

심우창 의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확대된다는 설명을 듣고 “환자는 비용적 측면에서 자가부담은 줄어들고 질적인 측면에선 간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하루 빨리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인천 서구의회와 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서울시』 현장방문 진행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가 12월 1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을 진행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서구의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근현대 우리 민족의 수난과 고통을 상징하였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시작으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 중 첫 번째로 만들어졌었던 조선 왕조의 법궁인 경복궁 그리고 전통시장 중 하나인 평화시장을 방문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는 현장을 확인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견학을 진행하였고 애국심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경복궁을 방문하며 우리 전통 문화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고 전통문화시장인 평화시장의 방문을 통하여 인천 서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주차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현장방문을 마친 후 의원들은 “오늘 방문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의정공로상 수상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이 지난 12월 28일(수) 인천시 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제1회 인천일보 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의정공로상을 수상했다.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제3대, 제7대 인천 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민의 행복 및 복리증진의 대변자 역할과 민생의 회 구현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행정 업무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남다른 열의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심우창 의장은 "모두 동료의원들이 도와주신 덕에 상까지 받게 됐다"며 "더 노력해서 원도심 재생사업이나 골목상권 살리기 등 서구 현안사항에 대하여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서구의회 의원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보고받아



지난 26일 인천 서구 공촌동의 닭 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오에 따라 인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 의원들은 29일 오전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으로부터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26일 오전 확정 판정을 받은 후 당일 오후 발생 농가를 포함하여 총 17농가 416수를 매몰 완료했으며, 소규모 농가 가금류의 일괄 수매·폐기 및 AI발생농가 3Km이내에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보고를 받은 뒤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활동 강화 등을 통한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며 "더 이상 조류인플루엔자(AI)가 관내 확산되지 않도록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긴장을 풀지 말고 AI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서구의회, 시대책추진 현장 점검



인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12월 30일 공촌동 대인고등학교 뒤에 위치한 이동통제소(B초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과장 및 안전총괄실로부터 방역실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지난 26일 인천 서구 공촌동의 닭 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오에 따라 29일 의정실에서 경제에너지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난 후 근무자 격려 및 현장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 의장은 "연말을 앞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무식 가져



인천 서구의회(의장 심우창)는 1월 2일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의 신년사 그리고 구민의 발전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시루떡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새해 힘찬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각오와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시무식에서 심우창 의장은 "겸청즉명 편청즉암(兼聽則明 偏聽即暗) 즉 두루 들으면 현명하고, 치우치게 들으면 도리에 어둡게 된다는 말을 가슴 속 깊은 곳에 담고, 구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며,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2017년 새해,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오는 2월 27일 제21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7회, 8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2016. 08. 23

을지연습 실재훈련



2016. 08. 24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자 격려 방문



2016. 09.02

검단신도시 사업현장 방문



2016. 09.09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명패 전달식



2016. 08. 25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방문



2016. 08. 25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방문



2016. 09.22

바르게살기운동 제19기 서구 여성대학 입학식



2016. 09. 26~28

서구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2016. 08. 25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016. 08.25

미래복지재단 방문



2016. 09.30

제2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마음 체육대회



2016. 10.05

전체의원 간담회

2016. 10.11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2016. 10.11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2016. 11.21



제1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2016. 11.2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10.14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 나누리 바자회

2016. 10.18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 11.21



제1차 향토유물 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2016. 11.21



제21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6. 10.18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불우이웃돕기 다과회

2016. 11.14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 나누리 바자회

2016. 11.28



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 행사

2016. 12.05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탈의실 증축에 따른 커팅식



2016. 12.13

제2차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2016. 12.21

녹청자 박물관 지역도예가 초대특별전



2016. 12.30

AI 대책추진 현장 점검



2016. 12.15

2016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폐회연
2016. 12. 15.(목) 12:00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2016년도 서구의회 폐회연



2016. 12.29

AI 관련 현황보고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



2017.01.02

서구의회 시무식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야..

여강 최재효

승승,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호랑이와 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아이가 아니라면 호랑이와 곰은 각각 호랑이와 곰을 토렘(Totem)으로 삼는 부족部族의 상징임을 눈치 채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어려서 처음 단군신화檀君神話를 접했을 때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워서 꿈에서 조차 호랑이와 곰을 만나곤 했었다. 어떻게 곰이 여인으로 변하여 인간과 사랑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당시 강렬하게 각인된 동화童話같으면서 신화적 느낌의 충격이 지금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

한편으로 어린 소년은 백수百獸의 제왕인 호랑이가 아닌 미련한 곰이 여인으로 환생하여 환웅桓雄과 혼인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는데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우리 민족의 옛날이야기나 민화民畵를 보면 곰 보다 호랑이가 더 자주 등장한다.

단군신화 이외에 곰이 등장하는 전설이나 신화는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의 이야기와 ‘어떤 사람이 곰을 만나 죽은 척 하다가 살았다’는 이야기 정도가 고작이다. 호랑이가 사람이 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우리 조상들이 호랑이를 이야기에 자주 등장 시킨 게 아닌가 싶다.

소년은 생전 처음 동물원에 갈 때 호랑이가 느긋한 자세로 긴 곰방대를 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그러나 소년이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는 으르렁대며 사육사들이 던져주는 고깃덩이를 두고 동료와 사투死鬪를 벌일 뿐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소년의 기대를 저버린 호랑이들은 소년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고 소년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로 운을 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게 되었다. 소년은 담배를 피우면서 자주 호랑이를 떠올리곤 했지만 이내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유년과 청년기를 보낸 소년의 머리 빛은 희끗희끗하게 변해 갔다.

중년이 된 소년은 건강을 생각하여 수도권에서 쉽게 오를 수 있는 도봉산이나 북한산을 자주 찾는다. 독실한 불자佛者는 아니지만 산 중턱에 산재한 사찰이나 암자에 발길이 이어지면 중년의 소년은 산신각山神閣을 유심히 살펴본다. 산신령님 곁에는 꼭 백호白虎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백호 역시 곰방대를 물고 있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담배 피우는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까? 늙은 소년의 담배 피우는 호랑이를 찾아 방황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듯하다. 물론 수원의 팔달사 외에 몇몇 사찰 벽에 해학적諧謔的으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긴 하다.

콜럼버스 보다 이천년 전쯤 동양문화권東洋文化圈의 어떤 사람이 신대륙에 발자국을 찍었더라면 중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의 각종 풍속이나 문학 장르에 담배와 관련한 내용이 풍성했으리라. 그랬다면 극동極東의 고금古금에 지어진 시가詩歌나 소설에도 술(酒)과 대등한 지위를 누리며 담배가 다양하게 묘사되었으련만, 담배가 커피와 더불어 서세동점西勢東點의 대표 주자가 된 역사적 사건에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을 대표하는 이태백, 두보, 백거이, 왕유, 소동파의 작품 어디에도 담배가 소재로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치원, 을지문덕, 이규보, 정지상, 황진이, 허난설헌의 시가에도 역시 담배를 찾아볼 수 없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도 담배가 등장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담배가 정말로 수천 년 전에 한반도에 전해졌더라면 담배 관련한 이야기와 역사적인 에피소드가 풍부하였겠지만 그만큼 담배로 인한 폐해도 컸으리라. 청나라 말기에 아편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아편에 중독된 일례를 보면 우리나라에 담배가 17세기에 유입된 일은 천만다행이다 싶다.

비록 담배가 유럽에서 이양선異樣船을 타고 극동極東에 전래되었지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가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印度인 줄 알았더니 그리 서운해 할 일도 아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의 열도로 건너와 조선에 담배가 전해지는 시기는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왜인倭人을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남쪽에서 왔다고 하여 타바코(Tobacco)가 남초南草라 불리었다.

이 외에도 연주煙酒, 상사초想思草, 반훈초反魂草, 영초靈草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인조仁祖 때 대신大臣이며, 효종孝宗의 장인인 장유張維가 담배(痰排- ‘목구멍에 끈끈한 점액

을 제거해 준다' 라는 뜻)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담배라는 이름이 정착되었다고 한다.

조선에서 담배가 여염閭閻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즈음(1610년대)이 되는데 조선에 역류되어 13년을 감금생활하다 자신의 나라 네덜란드로 도망한 하멜(H. Hamel)은 자신의 조선생활을 기록한 하멜 표류기, 일명 난주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에 '조선 사람들은 담배를 좋아하여 아이들도 4, 5세만 되면 담배를 피우며, 남녀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하멜은 민간요법으로 담배가루나 연기로 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던 듯싶다. 가래와 담을 없애주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담배는 조선 백성들에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영약靈藥이었을 법도 하다.

조선 후기 이후에 창작된 각종 회화繪畫나 시가詩歌에 담배가 등장한다.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의 민속화民俗畫에 공방대를 들고 있는 늙은 기생이나 노인을 볼 수 있다. 과거시험장을 묘사한 김홍도 金弘道의 공원춘효도貢院春曉圖를 보면 커다란 우산 아래 여섯 명의 선비가 시험을 앞두고 긴장된 모습을 사실감 있게 그렸는데, 한 선비가 태연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이채롭기도 하다.

또한 김득신 金得臣의 파적도破寂圖를 보면 노인이 긴 공방대 들고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 고양이로 뒤쫓는 긴박한 모습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다. 또한 혜원 蕙園 신윤복 申潤福의 주유청강 舟遊淸江을 보면 술 취한 사내가 기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기생에게 공방대를 권하는 농염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바야흐로 조선에 담배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담배 씨앗이 콜럼버스 손에 들어오고 120여년 만에 조선에서 일대 담배 혁명이 있어난다. 그 당시 담배는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민족에게 외래에서 수입된 물건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진 사례가 또 있었을까?

오죽 담배가 백성들 사이에 횡행橫行하였으면 호랑이도 담배를 피웠을까? 조선 후기만하여도 전국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로 민심이 흉흉하였다. 그에 파생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옛날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기도 하였다.

따지고 보면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은 겨우 400년 밖에 안 된다. 아마도 사람들은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다' 는 이야기를 동화童話나 전설傳說에 가미함으로써 사람과 호랑이가 다정하게 앉아 담배를 주고받았다는 상상을 하게 하여 이야기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 같다. 어쩌면 아주 오랜 옛날에는 호랑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개처럼 사람과 허물없이 지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사람과 친근하게 지내던 호랑이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자신을 인간으로 착각한 호랑이가 흥내를 냈을 수도 있을 법도 하다. 이야기꾼들에 의해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에 담배가 가미되면서 시간의 장구長久함을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즉, 불가능한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화자話者나 청자聽者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려 했던 시도가 참으로 기발하다.

인간은 극도의 두려운 존재나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미화美化하거나 희화戲化하는 내재된 버릇이 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를 물으면(특히, 구한말舊韓末 이전) 십중팔구는 무의식중에 호랑이를 꼽는다. 그 만큼 옛날 소년들에게 호랑이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었고 소년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후손들에게 호랑이의 두려움을 동화로 포장하여 전해 주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우리 조상님들은 민화에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두려움을 해학적 반전으로 친근감을 가지게 한 기지 奇智가 놀랍다. 호환 虎患을 두려워하면서도 실제로 호랑이를 만나 혼이 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카메라 덕분에 호랑이의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백 년 전 사람들은 그저 상상 속에서 호랑이를 두려워하였다.

우리민족에게 영물靈物같은 존재가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사라지고 없다. 단지 몇 마리의 호랑이가 수입되어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깃덩이를 받아먹으며,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이다. 숨을 헐떡거리며 간신히 일어나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백수의 제왕을 보면 측은하다 못해 콧등이 시큰해 진다.

그 옛날 사람과 마주앉아 다정하게 담배 피우던 호랑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요즘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냐?' 고 물으면 아마도 대답은 '사람' 이라고 할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티브이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 그 뉴스 기사의 상당 부분이 사람이 사람을 해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무서운 사람들 이야기로 전개된다.

반백년을 살아온 나는 아직 까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 라는 이야기나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 어쩌다가 BBC나 KBS 등 방송사에 의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화면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나 벵골 호랑이가 멸종에 임박한 이야기만 들어 보았을 뿐이다. 조만간 호랑이 역시 인간 세상에서 사라져 기록으로만 남아 정말로 옛날이야기가 될 듯하다.

나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호랑이가 담배를 피운다' 는 소식을 듣고 싶다. 그 소식이 전파를 타고 뉴욕, 런던, 요하네스버그, 상파울루, 시드니, 뉴델리, 모스크바에 전해져 세상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려 한국으로 몰려오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호랑이가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 일 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교감을 갖는다면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험악한 사회에 청량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비좁고 답답한 동물원에서 나와 사람들과 마주 앉아 정답게 공방대를 물고 있는 호랑이가 정말로 보고 싶다.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호랑이들이 꿈에게 기회를 빼앗겼던 옛날 조상들의 한을 풀기 위해 돌연변이突然變異하여 정말로 사람으로 化하여 신세계를 연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몹시 궁금하다. 그렇게 된다면 호랑이도 죽어서 이름을 남기게 될 텐데…….



최재효

출생년도 : 1960년 4월, 경기도 여주시
 최종학력 : 숭실대 영문과 60회 졸업
 등단년도 : 2004년 文藝思潮, 純粹文學
 소 속 : 인천문인협회 소설분과
 남동구청 문화체육과장(현)
 저 서 : 소설집 "유월에 내린 눈",
 시집 "달하 노피곰 도드샤"외 4권
 수필집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외 1권
 블 로 그 : <http://blog.daum.net/cjhoy6044>



세자매의 여행길

짜만 맞춰 놓으면 살아간다던 엄마의 말씀! 그 땐 그 말씀의 의미를 건성으로 들었다. 내가 지금 40대의 자식들을 보니 그 말씀의 뜻을 피부로 느낀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예쁘게 잘들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 역시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열심히 살고있고..

육칠십대의 세자매가 제주여행을 했다. 얼굴 맞대로 살아 가던 소녀시절. 그땐 무슨 얘기거리가 그리도 많고 무엇이든 재미있고 즐거웠던지.. 여자 형제들의 추억을 되살리며 비오는날 제주도의 돌레길. 물안개 그윽한 숲속길 폭포와 어우러진 바닷바람을 함께하며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했다. 어릴때 추억이 되살아난다.

대리만족으로 동생들 뒷바라지에 힘들어하지 않고 하얀 교복칼라 풀먹여 거울에 붙여 깃세우고 곤색 운동화 흰끈 매어 시골 흙탕길에 내보내 넣고 뒷모습 흐뭇해하며 미소 짓던 그때가 아득한 먼 옛날이다. 시골 산골 외딴집에서 산골소녀들이 나란히 나란히 사뿐사뿐 봄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단발머리에 검은실핀 곱고 팔딱팔딱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할때는 육칠십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까마득한 먼 훗날로 생각했는데, 우리들에게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고무줄이 주욱 늘어났다가 원위치에 돌아오듯이 우리에게 닥쳤구나. 지금은 같이 늙어간다고 턱 밑에 굵은주름이 힘없이 처지는구나.

각자의 생활에 열심히 살아가는 동생들.. 가진것 없이 풍족하게 나누진 못하지만 마음만은 뭐든 아낌없이 주고 싶다. 이것이 내라사랑이란 걸까?

-신영지

모든 걸 잊고 자유롭게 세 자매가 제주 바닷가에 걸터앉아 동요에서 가곡, 민요까지 목청을 돋구어 부르며 즐겼다. 각자의 생활에 쉽사리 엮이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절실히 느끼며 우애가 돈독해짐을 느낀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보니 이렇게 좋은 날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구나.

다음에는 먼 곳 아닌 가까운 언니, 동생 집이라도 오가며 옛날에 먹던 콩밭에 열무숙음과 강낭콩 섞인 보리개떡, 보리밥, 칼국수, 수제비 등 그때는 맛없고 지루했지만 지금은 건강식이 된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 보자구나. 처음이자 마지막같은 멋진, 뜻 깊은 여행길이었다.

제주를 뒤로 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그림이 바뀌는 하늘 길을 오르니 아쉬움과 뜨거운 혈운을 느낀다. 살면서 동생 손 잡고 목화솜같은 구름위에 올라앉으니 가슴이 몽클하고 애잔함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잡은 손을 슬그머니 놓았다.

동생들아! 너희도 이 애뜻한 느낌의 감동을 받고 있었겠지? 오늘따라 하늘의 구름이 유난히도 아름답게 느껴진다.

뜨거운 우애! 우리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자. 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작은 공간이나마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고 살자구나. 다음의 여정을 기대하며..

첫눈 오던 날

甘泉 오 정 순

갓가지 추억 내놓으라고 첫눈이 내린다
가끔씩 창문 흔들며 나와 보라 재촉한다

새하얀 시간 타고 찾아간
갓바람 감금시킨 '갓바위 집'
불꽃 물든 석쇠 위
조가비가 알몸으로 뒹군다
애처로운 삶을 향한 그들의 반란
이내 뽀얀 속살로 체념하며 달려든다

내려오는 포승줄은
움직이는 것마다 꿈쩍달삭 못하게 뽀뽀 묶으려 한다

'갓바위 집' 앞 작은 배 한 척
나도 움직일 수 있었다며
하얀 줄에 묶인 채 돌아앉았다



甘泉 오 정 순

- 2009년 8월, 한울문학 시 부문, 2009년 12월 소설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 재능대 문예창작과,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 문예지도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꽃꽂이 사범, 아동심리 상담사, 청라문학회원, 서구문화예술인회 회원, 한국문협회원, 인천문협이사, 국제 펜클럽회원, 대은교회 권사
- 개인시집: 『수신인은 나였네』, 『그곳에 가면』, 『엮어가는 나의노래』
- 공저: 『하늘빛 풍경』, 『생의 미학』 등
- 이메일: ojs5457@hanmail.net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제도 및 진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 원	진 정
정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사항이나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 것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의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위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불수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와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58)